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등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마게도나의 부름에 응답한 충현교회 로고스성경대학 설립 및 선교사 파송 논의

동구권의 선교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한 충현 동구권선교여행단은 17일과 18일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를 방문한 데 이어, 19일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도착하였다.

먼저 일행은 19일과 20일 감리교, 회중교회, 침례교, 하나님의 교회, 오순절교회 대표들과 이틀에 걸친 6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갖고 소피아에 최초의 불가리아 개신교 신학대학을 설립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5년간 공산치하에서 예배당을 빼앗기고 온갖 신앙적 박해를 받아오던 불가리아 교회가 개방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영적 지도자의 양육 문제였다. 각 교파마다 신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예배당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는 현 상황 아래서 이는 난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었다.

이중윤 목사의 방문으로 5개 교단장이 함께 모이게 된 자리에서 이러한 실정을 자세히 보고받

은 이중윤 위임목사는 불가리아 내에 연합 신학대학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에 관한 긴 논의 끝에 연합 신학대학인 "로고스성경대학"(Biblical Academy Logos)을 설립키로 하고 학교 건물 중 한 동을 충현교회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성도가 드린 헌금을 기증하였다.

또한 오는 1992년 6월에 개최되는 제3차 김치(KIMCHI) 세미나에 불가리아 교회 지도자 7명을 초청, 훈련할 것도 합의하였다.

한편 소피아에서는 이미 10여 명의 한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목사 청빙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다. 이중윤 위임목사 등 일행은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에서 소피아 선교사의 사역 범위, 선교사 지원 범위, 파송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2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일행은 김치(KIMCHI) 동문들과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중윤 위임목사는 김치(KIMCHI)

I) 동문인 버거 목사가 시무하고 3,00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다. 성도들은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감격하였다. 22일 체코슬로바키아 피제 교회에서도 증거된 이 목사의 설교 역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동구권복음대회("그리스도를 위한 새 동구권대회")는 예정대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칼비나에서 23일 저녁 7시에 시작되었다.

이중윤 위임목사는 16개월 전 토마스 왕 목사와 함께 이 대회를 발의 추진한 관계로 본 대회 고문으로 추대되어 첫번째 주제 강연을 하였다. "교회 갱신과 성장에 대한 성경적 원리"라는 제목의 이 강연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일행은 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대회에 재정 지원은 물론 영적으로 책임을 진 교회답게 동구권 교회 갱신 운동의 선두 주자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전 2000운동 자녀 위한 기도 운동 오늘 IV부 예배 후 제1차 설명회 및 기도회

비전2000운동 제1차 설명회 및 기도회가 오늘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다. 참모본부는 참모장 최석주 장로의 주재로 진행될 이 회의에 교구장, 지도 교역자, 지역장, 부지역장, 협력다락

방장, 다락방장, 권찰 전원이 참석할 것을 바라고 있다.

2천년대의 역군이 될 청년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하고, 제1회 한·일 기독교 청년 미래지도자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2000운동에 충현의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장소: 본당

4. 천국시민 총동원의 날

일시: 8월 25일(주일) 새벽 5시

장소: 본당

5. 승전감사예배

일시: 8월 28일(수) 저녁 7시

장소: 본당

6. 전도운동전개

남녀전도회 각 지회, 교회학교 각 부서별로 25퍼

센트 성장 위한 전도 운동 전개

7. 제2차 설명회 및 기도회

일시: 8월 11일(주일) 4부 예배 후

장소: 본당

대상: 교구장, 지도 교역자, 지역장, 부지역장,

협력다락방장, 다락방장, 권찰

●기간: 8월 19일(월)~28일(수)

●주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

●찬송: "주님께 귀한 것 드려"(302장)

●표어: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주요행사:

1. 새벽기도회

장사: 이중윤 위임목사

장소: 본당, 갈릴리움, 베다니홀, 나사렛홀

시간: 오전 5시~6시

찬양: 4면에 게재

2. 금식일 선포

일시: 8월 26일(월) 해 있는 동안

헌금: 북한 지교회 건립 기금으로 헌금(9월 1일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예배시)

3. 진군예배

일시: 8월 18일(주일) 저녁 7시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E다락방장님!

수요일이 되면 직장에서 숨들릴 겨를도 없이 교회로 달려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 공부에 참여하시는 권찰님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방금 사뿐히 내려온 천사를 보는 듯 합니다. 맡겨진 다락방 가족들에게 더 많이, 좀더 정확히 그리고 더욱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힘쓰시는 E다락방장님의 결의에 찬 헌신은 정말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가정의 주부요 직장을 갖고 가족 부양에 보탬을 주어야 하는 경제인으로서, 그것만도 벅찬 터에, 다락방장 일까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일이 본업이요 다른 것은 부업이라 생각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심방하고 전파하여 6개월만에 배가 운동의 결실을 보신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범적 기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섬기시는 귀 다락방에 화평과 복음의 열매를 넘치게 하라 하사 충현교회의 부흥은 물론 민족 복음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7. 28

이 중 윤 목사

결실맺는 김치(KIMCHI)세미나 체코에 김치(KIMCHI)센터 설립 제안

이중윤 위임목사 등 13명의 동구권선교여행단은 17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김치(KIMCHI) 세미나 동문 4명으로부터 뜨거운 영접을 받았다.

일행은 17일(화) 오전 9시 부카레스트 개혁교회 칼비나움에서 루마니아 교회 지도자 127명과 함께 집회를 가졌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알비 목사는 김치(KIMCHI) 세미나에 참석한 이래,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성경공부를 실시하게 되었고, 토요일에는 기도회를 갖게 되었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자신의 교회에 대해 자랑하였다.

역시 김치(KIMCHI) 세미나의 동문인 보키안 목사 부자는 김치(KIMCHI)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교회를 세워 부흥시키려고 6개월 전에 교회를 시작하여 이미 200

여명의 성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교단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도하던 중 이중윤 목사의 방문 소식이 이 나라 교계에 전해지자 총회 임원들이 일주일 전 그 교회를 허락키로 하여, 일행이 도착한 17일 밤 창립예배를 드리게 된 일도 있었다. 일행은 18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그밖에도 김치(KIMCHI) 세미나 동문들이 복음을 위하여 활발하게 목회에 임하고 있다는 평을 듣게 되었으며, 각 곳에서 충현교회에 감사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도자 빈곤을 보강하기 위하여 체코슬로바키아 피제에서 목회하는 호이카 목사는 현지에서 김치(KIMCHI) 센터를 건립하여 목회자 재훈련을 통한 동구권 교회 재건 운동을 제안하였다.

사랑의 집 건축허가 취득

그 동안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오던 사랑의 집 건축허가. 지난 7월 23일(화) 구청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노유자(老幼者)들을 위한 서

설을 갖추게 될 이 사랑의 집은 대지면적 363평, 연면적 823평을 지난 7월 23일(화) 구청으로부터 37.27퍼센트의 지상 2층, 지하 3층의 전통 한옥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성경 강해

이 중 운 목사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13:16, 17)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거나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얻으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복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이것이 있어야 하고 저 것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생명을 부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자유나 행복 추구는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다 있는데 돈만 없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집은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한이 있습니다. 이 우한만 사라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존귀함이 없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행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모두 이루면, 그것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1천만원만, 또 내가 1억원만 저금을 해 놓으면 평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1백평 정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팔아서 20억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평생을 잠만 자고서도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얼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많아질지라도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재물의 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어떤 목표 달성을 통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떡이 커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면 여전히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 주변을 맴돕니다. 국회의원, 재벌, 장관과 같이 부귀영화를 얻는 자리에 처하게 되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와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일을 굶고나니 아내 얼굴도 안 보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행복의 근원

그렇다면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재산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그분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돈, 내 자식, 내 재산만 따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

진정한 신앙인이며, 그것을 알고 믿으며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3. 우리가 행할 일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천국시민들의 생활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섬길 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되 나를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섬기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신 것입니다. 자기 치장하는 데는 사정없이 돈을 쓰다가도 하나님 일과 그 뜻을 이루는 일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25:35,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25:40)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헐벗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섬기는 자세로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복이 오게 됩니다. 내가 종이 되기 위하여 보람을 받은 자로 알고 섬기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빼앗겨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행복자가 될 터이니, 우리 모두 오늘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교훈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씀하신 것을 알고 행하면 그때 행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할 때에 행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메트로가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물에 빠지게 될 것을 몰라서 말했듯이, 그는 물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물 위로 팔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2.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본문 1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요13:16)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와 제자들을 배유하신 말씀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이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며,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집사에게 죽으심이라”(빌2:6-8)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13:15)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겸손한 자세를 택하신 것을 너희가 알고 믿는다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들은 종으로서 상전되는 자보다 크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I. 대전 직후의 기독교 발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기독교의 원점은 1943년의 종교단 체법에 의한 일본기독교단 창립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종교단체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기독교는 교파를 초월하고 다 하나의 교단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패전 후에 신교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적인 강제로 하나의 교단에 묶인 각 교파는 해외에서(주로 미국에서) 물려온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일본기독교단을 떠나 독자적으로 열심히 전도 사업에 전력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전 후의 일본 기독교의 흐름은 (1) 초교파적인 하나님의 뜻을 느껴서 일본기독교단에 그대로 남아 있는 교회들(주로 NCC계통), (2) 일본기독교단에서 이탈하여 원래의 교파를 형성하기에 이른 구교파교회들, (3) 일본인 사역자들의 손에 의해 새로 설립된 교회들(주로 나카타 주씨(中田重治)의 흐름을 잇는 성결교 계통에 많다), (4) 그리고 대전 후 일본에 새로 온 선교단체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들로부터 구성된다. 특히 대전 후에는 해외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의 활동이 현저하였고, 1951년에는 약 2,000명 그리고 1955년에는 약

> 특집 <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일본의 기독교를 말한다(1)

심길웅 목사
(일어교육부 지도)

4,500명의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전도사업에 종사했다.

이러한 선교사들은 서로의 교제와 협력을 목적으로 1947년에 EMAJ(The Evangelical Missions Association of Japan)를 설립하여 기관지《추수일본》과 “선교사연감”을 발간하였다. EMAJ는 후에 JCEM(Japan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과 합동해서 JEMA(Japan Evangelical Missionary Association)로 재편성되었다. 대전 이후 10년 동안은 많은 선교사들의 협력 아래서 일본 교회가 눈부시게 부흥한 때였고 선교의 일대호기를 맞게 되었다. 카가와 토요히코(賀川置彦)가 중심이 되어 신일본 건설기독교운동(新日本建設基督運動)을 전

개하여 120만의 청중들을 동원하여 약 20만의 결신자를 얻은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발생 한 것이 바로 6·25사변(韓國動亂)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일본 경제는 크게 발전되었다. 그런데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선교사들이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일본 국민의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에 시련의 세월이 다가왔다.

II. 전도 사업의 문제점들

일본 교회는 작은 규모에 있으면서도 해외의 선교사들과 꾸준히 좋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의 특징들의 하

나가 세계 어느 선교지와 비교해 보아도 일본인 사역자들의 지도력이 월등하게 강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사역자들의 우수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역대 구미 선교사들의 겸손의 덕으로 인한 점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1959년은 일본에 기독교(신교) 신앙이 전래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깊은 해였다. 전국 각처에서 기념 행사가 거행되었다. 그 결과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공통적인 토대로 하여 복음주의적인 제교파간에 협력과 교제를 목적으로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일본에서 대규모 전도집회의 큰 공헌을 남긴 기관은 월드비전(World Vision: 전도와 사회 사업을 위

한 기독교기관으로 한국에서는 “선명회”등의 사업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이었다. 1961년 그 총재인 B·피어스(Bob Pierce)를 주강사로 당시 교계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참석하여 한 달에 걸친 부흥집회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연 226,000명의 참석자, 9,000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교계, 특히 일본기독교단(NCC계) 내부에서 사회파와 교회파의 반목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964년 혼다 코지(本田弘慈)목사는 동경에서 9일간의 대중부흥집회를 열어 약 20,000명의 참석자와 2,000명의 결신자를 거두었다. 이것은 일본인 전도자에 의한 전도집회로서는 처음이요 획기적인 일이었다.

1967년에는 역시 동경에서 B.그래함(Billy Graham)국제대회가 열려 참석자 200,000명, 결신자 15,000명의 열매를 거두었다. 이러한 대규모 대중집회들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은 협력 전도를 둘러싼 일본 교회의 주체성, 협력에 있어서의 신앙적인 입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가서는 선교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었다. (계속)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겪은 이후라 그런지 이번 수양회는 많은 기대감과 더불어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다. 많은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매 순서마다 역사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여러 회원들에게 김정우 목사님께서 주

를 안고 있는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을 느끼며 그분의 사랑을 본받고 있는지, 과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자문을 해보았다. 실로 자신을 객관화시켜 심각한 자기 반성이 있었던 시간이었다.

게다가 김양홍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더욱 흔들여 놓았다. “향기인가, 냄새인가” 이것

이 것들이 있었고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모든 사람이 은근히 기대했던 캠프 화이어! 김정우 목사님의 강렬한 메시지와 함께 높이 타올랐던 불길을 바라보며 형제·자매의 즐거운 교제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이후의 회개와 헌신의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 수양회를 다녀와서

새 생명의 기쁨을
만끽한 기회

이 은 경 성도
(청년2부)

셨던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였다. 이 말씀은 나에게 굳어져버린 마음을 새롭게 일구어내어야 하겠다는 강한 자각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써 수양회에 임하는 나의 마음은 더욱 열려지고 준비되어졌다. 나는 자신의 신앙상태를 재점검해보며 천로역정의 시간을 통해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며 어떤 죄의 문제

는 실로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도전이었으며, 이후의 우리 삶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기도회 때에는 나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자신을 변화시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간절함

내어맡기는,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진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저 불길 속에 던져 새롭게 태어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들은 조용히 촛불을 흔들며 각자 속소로 돌아갔다.

전도회 탐방

사랑으로 모든 것
풀어가는 전도회

- 루디아전도회 제9지회 -

루디아전도회 제9지회(회장 방순애 집사)는 사랑과 화합을 바탕으로 하여 전도에 임하고 있다.

회원이 모두 35명인 이 전도회는 한 가족 같은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고 있는 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하여 성남 인화병원, 인천소년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도회의 부흥이 교구와 교회 부흥에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루디아전도회 제9지회의 회원들은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 전도를 목표로 하여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하여 이미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월례회 등 각종 모임 때는 물론 기회가 닿는 대로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오고 있다. 지난 7월 9일에는 회원들 각자가 품고 있었던 태신자들을 초청하여 야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태신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이것은 루디아전도회 제9지회가 견지하는 전도 방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부터 빠른 결신을 얻어내기 위한 전도 방법과는 조금 색다른 전도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금과 빛으로써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전도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루디아전도회 제9지회 회원들은 사랑의 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해나감으로써 전도자로써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자녀들과 비전2000운동에 참여하자

비전 2000운동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운동이다. 따라서 충현의 성도들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여 전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자녀들이 새학기를 맞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참모본부는 방학 기간 중 교회학교 학생 전원이 이번 비전 2000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부모들이 이에 협력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성

도들과, 특히 새벽 기도 후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출현 차와 식사가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루디아전도회와 스터전도회가 지회별로 봉사하게 된다.

일자별 주력 교구

일자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교구	1 13 14 16 대학부 청1, 2, 3부	2 5 9 10	3 6 17	4 7 11 15	1 2 8 12 대학부 청1, 2, 3부	9 13 14 15	교회학교 관 양 대 전교구	3 5 10 16	4 8 11 17	6 7 12 대학부 청1, 2, 3부

교구별 봉사 일정

• 출현차 봉사 : 루디아전도회 *책임담당 : 염숙현 권사, 일일봉사 인원 : 25명

일자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지회	5	6	7	8	9	10	11	12	13	14

• 식사 봉사 : 에스더전도회 *책임담당 : 현계식 권사, 일일봉사 인원 : 5명

일자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지회	1	2	3	4	5	6	7	8	9	10

새벽기도회 찬양 담당

일 자	요 일	찬 양 대 명	인 원	지 도 책 임 자
19	월	장로, 안수 집사 부부	150	윤용규 목사, 윤명식 장로
20	화	남녀전도회 임직원	300	송태근 목사, 우기전 장로
21	수	연합찬양대	200	신표근 목사, 오태희 장로
22	목	연합찬양대	200	신표근 목사, 오태희 장로
23	금	연합찬양대	200	신표근 목사, 오태희 장로
24	토	연합찬양대	200	신표근 목사, 오태희 장로
25	주일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동무자	150	김학전 목사, 이영재 장로
26	월	연합찬양대	200	신표근 목사, 오태희 장로
27	화	연합찬양대	200	신표근 목사, 오태희 장로
28	수	대학부, 청년 1, 2, 3부	400	김해규 목사, 김차생 장로

'91하기 농어촌전도대 내일 파송

'91하기 농어촌전도대 1차 팀이 29일(월) 오전에 교회를 떠나 전국 각지에 있는 지교회와 부산, 마산 지역의 병원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간다.

전도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파송되어 4박 5일간 정해진 곳에서 노방전

도를 통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된다. 제2차 파송은 8월 5일에 있다.

하기 농어촌전도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라는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겠다.

베드로전도회 제1지회 특별 간증집회 가져

베드로전도회 제1지회(회장 이부성 집사)는 지난 7월 26일(금) 오후 7시 베다니홀에서 개포동 에인교회 담임목사인 최성욱 목사, 최안순 사모를 모시고 특별 간증집회를 가졌다.

예전에 인기 혼성듀엣으로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최 목사 부부의 이남남 간증은 베다니홀을 가득 메운 성도들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다. 간증시간 후 기록영화 상영을 통해 보았던 "기아에 허덕이는 아디오퍼아인의 참상"은 회원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새가정부 성경퀴즈대회

새가정부(부장 최상규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는 오늘 오전 11시 집회를 마치고 소석관 201호와 202호에서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성경퀴즈대회는 회원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범위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다.

다락방 순례

합심기도로 응답받은 다락방

- 제8교구 불광2다락방 -

제8교구 불광2다락방(지도 김영구 목사, 부지도 장영자 전도사, 다락방장 조자순 집사)은 모이기에 힘쓰는 다락방이다.

모두 12세대가 소속되어 있는 불광2다락방 식구들은 다락방 예배를 통하여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거의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 기도 제목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다락방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에 전력을 다한다. 다락방에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합심기도를 하고, 좋은 일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하거나 상을 당한 다락방 식구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 심방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장 조자순 집사는 "다락방 식구들에게 함께 심방할 것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동행해주어 너무 감사합니다. 다락방 식구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뭉쳐 서로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려 애쓰시는 다락방 식구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간의 교제가 바로 이런 것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매주 갖는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식구와는 금요일 오후에나 토요일에 일이 심방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믿음이 약해서 심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을 갈 때마다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었다. 거의 1년 동안 다락방장과 다락방 식구들이 그 성도에게 신앙의 성숙을 허락해달라고 빈 집의 문고리를 붙들고 기도하였다. 그러기를 1년, 눈물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성도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다락방 식구들이 1년 동안 문고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이웃까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그밖에도 합심기도를 통해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얻은 제8교구 불광2다락방이 기도와 사랑의 교제 안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날로 부흥해 나가기를 바란다.

은혜 중에 계속되는 수양회



연일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초등6부의 성경학교와 중등3부, 고등부, 에바다부 학생들의 수양회가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부흥회 등 여러 가지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기회를 가졌다.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는 부서는 청년1부(8월 2일~3일), 장년1부(8월 15일~16일), 장년2부(8월 16일~17일), 장년4부(8월 15일~16일), 소망부(8월 22일~23일), 에바다부 성인반(8월 14일~15일), 권사회(8월 8일~10일)이다.

광양의 소리

① ... 금년 여름에도 이집없이 찾아온 불청객 손님 장마바. 믿는 자들의 이웃 사랑을 하신다. 믿음의 저울로 달아보십시오.

오늘은 이집없이 수고하는 차량관리요원, 식당봉사요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

② ...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들 한 자리에 모임 예정. 저들의 젊음이 아시아 복음화의 못자리판 되리라.

비전 2000기념비 8월 8일 봉헌

우리 교회가 교회 내에 시계탑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제작에 들어갔던 시계탑이 완성되어 오는 8월 8일(목) 봉헌하게 될 예정이다.

비전 2000 기념비의 주재료는 스텐레스 스틸 27종과 황동이며, 무게는 1.2톤, 높이는 10미터, 총 길이는 15미터, 지구본의 직경은 1미터 89센티, 외원의 직경은 2미터 50센티, 지구본의 둘레는 5미터 93센티, 외원의 둘레는 7미터 85센티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성도의 헌금으로 제작된 것이다.

